

“후 40년은 늙려가, 천하의 무극대도가 8년이 더디도다”

인류 역사 6,000년 만에 성경 예언대로 구세주가 출현하였다. 격암유록의 생초지락에는 20세기 후반에 정도령이 출현한다고 했으며, 불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북방불기 3007년에 미륵불이 출현한다고 했다. 이로써 유불선 합일의 정도령·생미륵불·구세주의 출현 시기가 1980년 경신(庚申)년으로 귀결된다. 실제 1980년 10월 15일에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 밀실에서 연단 받던 조희성님이 이긴자가 되었다. 이긴자란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점령하시는 데 성공하여 승리의 하나님이 된 존재를 말한다.

일 년 365일이 3개월 주기로 봄·여름·가을·겨울 등 4계절이 있듯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대나무의 마디와 같이 40년 주기마다 중요한 업적이 발견된다. 예컨대 수운천사(水雲天使) 최제우 선생이 37세에 49일간의 구도 끝에, “무극대도(無極大道)가 최상의 도(道)라는 것을 인지(認知)한 자는 인류 역사 이래 내가 처음이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날이 경신년(庚申年) 1860년 4월 5일이다. 그리고 1860년에서 40년 주기가 세 번 돌아 120년째 되던 해, 1980년 경신(庚申)년 10월 15일에 금운천사(金運天使) 조희성님이 무극대도를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 '이긴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와 비견되는 동양의 남사고 선생이 기록한 격암유록 예언서에서는 십승진인 정도령이 승리대상(勝利臺上) 즉 승리제단 단상에 계신 분이요,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노아방주와 같은 반월선(半月船)을 띄운다고 예언하고 있다. 구원선이 되는 반월선이 곧 승리제단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발생한 대홍수에서 노아의 여덟 식구가 구원선이 되는 방주를 타고 살아남아 그들이 현재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이 물난리로 방주에 승선하기 전 120년(40년의 3배수)의 기간 동안 노아는 “지상의 사람들이여, 술에 취해 강포를 행하지 말며 정욕에 불타서 시집 장가는 패역한 행위를 삼가라!”라고 외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외치다가 급기야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높은 산들까지도 물이 차고 넘치게 되니 여러분들 큰 배를 만들어 대비하시오!”라고 외쳤다.

동학 창시 120년 만에 무극대도 출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대나무의 마디와 같이 40년 주기마다 중요한 업적이 발견된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기

간이 40년의 10배수가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선지자 모세와 더불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입성하기 전, 광야생활의 기간이 40년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격암유록에 예언된 반월선이 되는 승리제단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땅이 440평이라는 사실이다.

이쯤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민족종교 동학과 연관된 후천운의 수운천사 최제우 선생과 화운천사 강증산 선생에 이어서 중천운의 목운천사 박태선 영모님과 금운천사 조희성님에 이르러 무극이 회복되어 불생불멸하는 황극중천시대가 열린다는 변천과정을 그린 하도낙서(河圖洛書) 육도삼략(六韜三略)은 유불선을 통합하는 원대한 원리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증산(姜甞山) 선생(先生)은 “예수교도는 예수의 재강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彌勒)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교도는 최제우(崔濟愚)의 경생(更生)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도전(道典) 2편 40:1-4]”고 말했는데 이는 인류를 바른길로 이끌 스승인 금운(金運)이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는 구세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지역리도수(天地易理度數)의 변천과정을 묘사한 하도낙서(河圖洛書) 육도삼략(六韜三略)에 따르면, 수운(水雲) 최제우 선생은 2략(二略)의 3도(三韜)에 해당하며, 3도(三韜) 후천지선천신선하도(後天之先天神仙河圖)는 수운지시삼극지전(水雲之時三極之天)이라고 하였고 이를 삼역대경에서는 “靈符生焉而天一生水之 水雲先師(영부생연이천일생수지 수운천사)라고 하였으니 이는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선생이 54궁지운(五十四宮之運)으로 오셨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용담(龍潭)이다.”라고 최제우 선생이 말한 것은 당신이 수운(水雲)으로 오셨음을 자인하는 뜻이다.

수운천사(水雲天使) 최제우 선생이 1860(庚申)경신년 4월 5일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접했던 그 날에 지은 가사, 『용담가(龍潭歌)』에서 “어허세상 사람들이 무극지운(無極之運) 닥친 줄을 너히 어찌 알

까보냐”라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운(水雲) 최제우 선생이 37세가 되던 1860(庚申)경신년 4월 5일부터 무극(無極)의 운(運)이 곧 닥칠 것이라고 전도를 시작하여 그다음에 화운(火雲) 강증산 선생이



인내천 사상을 기반으로 한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 대신사(大神師) 출처 : <https://blog.naver.com/jasonryoo/222355904734>

63궁지운(三十六宮之運)으로 바통을 이어 받고 그다음에 72궁(七十二宮)의 목운(木運) 박태선 영모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3략(三略)의 6도(六韜)에 해당하는 금운(金運) 조희성님에 와서 무극대도를 이룬다.

정도령 조희성님이 무극(無極)의 도(道)를 이룬 주인공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하남인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경지’ 즉 신인합일(神人合一)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원시반본(原始返本) 되었다는 점이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과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 거듭하는 방법(방법)을 역조장생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은, 조희성님 자신이 태초 이래 처음으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기는 하나님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사는 곳이 곧 천국이라고 성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세주 조희성님은 구체적으로 사람이 죄인으로서 죽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사람 속에 음양의 성품을 지닌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한테 지배당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피를 썩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늙고 병들어 죽어서 땅(地)의 옥(獄)으로 들어간다는 엄청난 진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또 '나라는 음양의 마귀를 죽이고 음양의 극(極) 즉 음극과 양극이 없는 무극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천국이라고 설파하신다.

40년 주기로 발생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과정에서 50년 주기 또한 60년 주기 그리고 일백년, 일천 년 주기 등 다양한 주기로 발생하는 중요 사건을 접할 수 있겠다. 다만 여기에서는 40년 주기로 발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과정에서의 전환점을 찾는 데 주력한다.

예컨대 수운천사(水雲天使) 최제우 선생이 갑자(1864)년 3월 10일에 세상을 뜨시

면서 “전 40년은 내려니와 후 40년은 늙려가. 천하의 무극대도가 더디도다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다. 여기서 최제우 선생이 임종 시에 남긴 최후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면, ‘전 40년’은 수운 최제우 선생의 출생에서 41세 순교까지, ‘후 40년’은 화운 강증산 선생의 출생에서 39세 화천까지의 기간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어떤 민족종교에서는 전후 40년의 주인공이 뒤바뀐 상태로 해석하여, ‘전 40년’은 화운, ‘후 40년’은 수운으로 본다.

하지만 증산 선생이나 최수운 선생이 막 태어나서 배밀이 시거나 걸음마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고 볼 수 없기에, ‘전 40년’은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고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1860(경신)년부터 계산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 같다.

왜냐면 수운 최제우 선생이 1860년에 경주 용담정에서 도를 깨우치고 그해에 동학이라는 민족종교 창시되었고 도를 4년 동안 전하다가 1864년에 순교와 동시에 동학이라는 종교가 역사의 무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으며, 동학의 제2대 교조 해월 최시형, 제3대 교조 의암 손병희 선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 40년’은 1860(경신)년부터 40년 되는 1900년도를 주시할 수 있는데, 1900년에 동학 제3대 교조가 된 손병희 선생은 동학교도의 재수습에 나서는 한편 동학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전환기를 엿볼 수 있다. 이후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되면서 유교·불교·선교의 사상을 종합, 통일하는 종교적 노선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전 40년은 내려니와 후 40년은 늙려가. 천하의 무극대도가 더디도다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라는 최수운 선생의 최후 말씀 중 ‘후 40년’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예를 들자면 너무 난해하고 또 너무나 많은 40년 주기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열할 수 없기에, 시사비비에 휘말리기 쉬운 ‘후 40년’은 수많은 구도자의 역랑에 따른 스스로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만 ‘전 40년’을 하도낙서(河圖洛書) 육도삼략(六韜三略)에 따른 천지역리도수(天地易理度數)의 변천과정에서 후천운의 시대에서 찾은 것처럼, ‘후 40년’은 무극대도가 완성되는 중천운의 시대에 찾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육도삼략(六韜三略)에서 16수운 최제우 선생에 이어 27화운 강증산 선생까지의 후천운에서 그들의 사후 범동이 38목운과 49금운에서 마무리되는 중천운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11>

“마귀를 죽이는 기술만은 노출시키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 땅 위에 사랑을 몰아내려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마귀를 죽이는 기술만은 노출시킬 수가 없다. 6,000년 만에 개발하여 특허를 냈기 때문에 아무나 훔쳐내서 못 내는 것이다.

어떤 마귀를 죽이면 비가 오고 어떤 마귀를 죽이면 태풍이 죽고 마귀들이 이 기술을 알아보려고 갖은 수단을 다 부리지만 철벽같이 인봉(印封)하여 놓았기

때문에 이것만은 마귀한테 안 내어놓는다.

앞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으면 몸이 변하고 또 어떤 마음을 품으면 날을 수 있는 몸으로 화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 그때는 썩을 양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날나라, 달나라 어디든지 생각하는 동시에 멋지게 여행하며 사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부신(콩팥)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점심 먹고나서야 기운을 차린다거나, 정신이 맑지 못하고 신경질적이며 쉽게 흥분한다면 부신의 이상신호라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부신은 콩팥(신장)위에 위치하고 있는 내분비기관으로서 결절과 속질로 이루어져있으며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결절에서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염류코르티코이드, 남성 호르몬을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콜아민을 만들고 분비합니다. 정상적인 부신은 정확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반응하고 적응합니다.

부신의 무게는 약 5g, 크기는 3-5cm 정도이며 오른쪽 부신은 삼각형 모양이며 왼쪽 부신은 반월형에 가까운 모양을 보입니다.

부신 질환은 부신수질 질환과 피질 질환으로 나뉩니다. 수질에 생기는 질환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것은 갈색세포종(褐色細胞腫)으로 이 경우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됩니다. 증상으로는 주기적으로 고혈압이 나타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땀을 많이 흘리고,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심한 두통과 불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하기도 하는데, 이는 약물요법으로 거의 치료됩니다.

부신피질 질환은 부신피질 호르몬의 과다분비로 인한 기능항진증과 과소분비로 인한 기능감퇴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는 아디손병(Addison's disease)이라고 불립니다. 부신피질기능항진증은 양쪽 부신이 모두 커지는 선천성 질환이나 부신 종양·비대(肥大) 등에 의한 후천성 질환 때문에 생깁니다.

여자에게 선천성 부신비대가 있으면 남성화와 여성반응양(假性半陰陽)이 되며 남자에게는 성적으로 조숙해집니

다. 후천성 부신기능항진증은 쿠싱증후군(Cushing's syndrome)이나 부신성기증후군(副腎性器症候群)으로 나타납니다.

부신기능부전은 결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이나 진균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출혈이나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 아밀로이드증, 혈색소증과 기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신기능부전은 이처럼 부신 자체에 생기는 문제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병변, 쿠싱증후군으로 인한 선종 절제술 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신기능부전이 만성일 때 증상들

부신기능부전이 만성일 경우, 전신 쇠약감과 무력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오심, 구토, 식욕 변화로 인한 체중 감소, 저혈압, 저혈당증, 체모 탈락, 전신의 색소 과다 침착 증세가 나타납니다. 음식물 찌꺼기 먹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급성 부신피질 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식욕 감퇴, 오심 구토가 더 심해지고, 복통이나 발열이 있으며, 심한 탈수 증상과 전해질 이상, 쇼크, 심한 경우 의식 소실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코르티솔,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CT나 MRI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신기능부전이 만성일 경우, 당류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하거나, 염류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합니다. 원인 질환(결핵)이 있는 경우 결핵약을 투여하며, 이때는 당류코르티코이드 투여량을 증가시킵니다. 급성 부신피질 기능저하증의 경우 유발 인자를 치료하고, 대량의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정맥 투여합니다. 전해질 및 수분 조절을 위해 수액, 포도당 주사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김주호 기자

구세주 예배 말씀집

5

신간서적
승리신문 서구부

3

4

2001년 2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277쪽 / 8본문용지

- ▶ 구세주 예배 말씀집 5집 펴냄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길ियो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복원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세주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5대공약을 했고 장마철에는 장마가
지지 못하게 했으며,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지
못하게도 하셨다. 이러한 놀라운 권능은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